

해남서 태어나면 18세까지 총 9156만원 받는다

신생아 양육비 24개월간 분할 지급...첫째 320만원·둘째 370만원 소득 관계없이 2년간 기저귀 구입비도...출산·보육·교육 지원체계 구축

해남군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성인이 되기 전 18세까지 총 9156만원을 받는다.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는 2024년생 출생아가 1세가 되는 시기부터 '출생기본수당'을 지원하는 등 출산부터 보육, 교육에 이르는 탄탄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우선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에는 3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해 아동 양육

에 필요한 물품을 폭넓게 살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생아 양육비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지원한다.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는 총금액으로 첫째 아이 320만원, 둘째 아이 370만원, 셋째 620만원, 넷째 이상은 740만원이 지급된다. 군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9만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216만원의 기저귀 구입비도 지원한다. 0세부터 1세까지는 가정 보육 시 부모 급여가 매월 각각 120만원, 1~2세까지는 60만원 등 2년

간 총 1800만원이 지급된다. 2세 이상 가정에서 보육 시에도 취학 전 7세까지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이 있다. 1세부터는 전남도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20만원씩 18세까지 지급받는다면 총금액은 4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7세까지 매월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되며, 8세부터 13세까지는 전남도교육청에서 월 10만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 한 해 출산과 양육의 정책을 한층 강화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해남을 조성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난해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장을 찾기 위해 청산도항에 몰린 관광객 인파. <완도군 제공>

목포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발전 밑그림

기본계획 수립 2차 중간보고회

목포시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청사진을 짜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용역사의 중간보고, 질의 답변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공유했다. 이번 용역은 섬 지역 및 주변 해양 일대 조사·분석과 개발 방향 설정,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는 지속해서 다양화·증대되는 추세로, 시는 목포가 해양레저의 최적지라는 판단하에 목포를 체류형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하고자 이번 용역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다.



목포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는 이번 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청사진 삼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가 가지고 있는 해양레

저관광 자원을 발굴한 다양한 해양 여가 콘텐츠 창출로 서남해안의 대표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 '공무원 가족 전입 우대' 인구 증가 효과

숙소 마련 지원...폐교 위기 극복 등 사회 문제 해결

신안군이 인사이동 시 가족과 함께 전입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지원하거나 숙소 비용을 지원해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팔금면에 이어 올해도 흑산면 보건지소로 발령받은 직원인 중학생과 초등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와 함께 흑산도로 전입했다.

올해 인원 부족으로 5, 6학년 통합 반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흑산초등학교는 전입해 온 공무원 자녀로 학년별 별도학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군수는 인구 감소, 폐교 위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선례를 해주는 직원들에게 가족의 보금자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학원도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진 섬으로 학교에 다니는 가족과 함께 전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거라 생각한다"며 "용기를 내준 직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전입이 아니라 교육환경을 바꾸고,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들이 지역의 희망과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안=이상선 기자 sstee@kwangju.co.kr

영광군 "실뱀장어 자원 보호" 불법 포획 단속

5월까지 무허가 어업·불법 유통 등

영광군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실뱀장어 불법 포획 단속에 나선다. 영광군은 실뱀장어가 주로 출현하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분별한 포획과 불법 유통으로 연안 생태계의 중요한 수산자원인 실뱀장어 자원 감소와 생태계 파괴 예방을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불법 어구 사용, 포획 금지구역 위반,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영광군은 단속에 앞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활동을 하고 주요 지역에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양식장에서 키운 실뱀장어 포획은 '수산법'과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후 정해진 구역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실뱀장어 불법 어업 특별 단속을 알리는 안내문. <서해어업관리단 제공>

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성숙한 준법 조업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이 회복돼 풍어 소식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 12개 마을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 행사

영암군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11~12일 12개 마을주민이 한해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다양한 세시풍속 행사를 개최한다. 11일 시종면 원월동마을, 군서면 남송정마을·서호정마을·오산마을, 학산면 용산마을·지소마을은 각각 당산제를 연다.

12일 신북면 모산마을은 당산제·천신제를, 시종면 장동마을은 풍물놀이, 군서면 동계마을은 당산제를, 양장마을은 사물놀이를, 학산면 덕수마을은 덕수리사제, 학계마을은 석불암제사를 각각 개최한다. 각 마을은 전통과 여건에 따라 달빛태우기, 지

신밧기 등도 함께 연다. 군은 각 마을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시풍속 행사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월 신청서를 받아 선정된 12개 마을에 총 560만 원을 지원했다. 영암군은 15일 영암읍 달맞이공원 일대에서 12일 정월대보름과 14일 밸런타인데이를 잇고, 새해 영암군민의 평안을 기원하는 '영암 고구마 달빛축제'도 개최한다. /영암=전병환 기자 jbh@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완도군, 20명→10명 이상 완화...1박만 체도권 1인 1만5000원

완도군이 '2025년 완도 방문의 해'를 맞아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을 확대한다. 완도군에 따르면 여행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안내 음식점, 숙박업소, 해양치유센터 체험, 특산물 판매장 등을 이용할 경우 총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군은 단체 관광객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인센티브 기준을 완화했다.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은 10명 이상으로 당일 기준 체도권 여행 시 1인당 1만2000원, 섬 지역은 1인당 1만5000원이 지원된다. 체도권이란 육지를 일컫는 말로, 섬이 있는 군

은 섬과 육지를 구분하기 위해 이 말을 행정 용어 등으로 사용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만5000원, 섬 지역 1만8000원을 준다.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할 경우 체도권은 1인당 2만5000원, 섬 지역은 1인당 2만8000원이 각각 지급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섬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 유일 치유의 섬으로 많은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며 완도의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ng

해남군, 귀농·귀촌인에 빈집·경작지 임대

2~4인 기준 최대 5년 거주...농지는 최대 3년까지

해남군은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과 초기 영농비용 경감을 위해 빈집과 경작지 임대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은 해남군 빈집 재생사업을 통해 개조한 농가주택으로, 2~4인 가족이 살기 적합한 규모이다. 옥천면 1개소, 황산면 1개소, 산이면 2개소 등 4개소다. 임대용 농지는 화산 연곡리 약 6500㎡ 1개소, 해남 백아리 약 7000㎡ 1개소 등 2곳이다. 임대용 주택 신청 자격은 해남군에 전입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입 가구 또는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귀향 가구다. 2년6개월 임대 후 갱신 1회가 가능하며, 최대 5년간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연 12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농지 임대 신청대상은 해남군 전입 5년 이내이거나 전입할 예정인 자로 만 19세 이상~65세 이하

의 귀농인이다. 농지는 해남군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임대료는 면적과 개별지가 기준, 사용요율 등을 종합해 책정한다. 주택 및 농지 임대 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061-531-4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누리집의 군정 알림란에서 '2025년도 땅갈 빈집 농지 플랫폼 구축사업 주택 및 임대농지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부담없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초기 귀농인들의 영농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생 190명 선발

내일부터 성적 우수·다문화·예체능 등 분야

(재)무안군승달장학회가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12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승달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요건은 공고일인 2025년 2월 7일 기준 부모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 중 한 명이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국민 자녀인 경우이다. 선발 규모는 성적우수(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 예체능, 다자녀가정(중·고등학생, 대학생), 체육꿈나무,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90명을 선발 예정이다. 장학금 규모는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으로 총 1억 9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강화했다. 주거비 분야의 장학금을 신설하여 광주·전남 외 지역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여건 속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게 했다. 접수는 학부모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되며, 남부 주민은 남부복합주민센터에서, 오룡 주민은 오룡현장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장학생은 3월 말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나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061-450-5337)으로 문의하면 된다. 무안군승달장학회 이사장 김산 무안군수는 "우수한 지역 인재들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내실이 있는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